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출은 자제하고, 모임은 연기해 주세요.
전화나 인터넷, SNS로 소통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잠시만 안녕하면,
모두가 ‘안녕’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집에 머무르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해 주세요!

3년 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지

굿모닝인천

APRIL 2020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16

04

코로나19 대응 특별판
‘시민이 빛이다.’ 신기시장에서 방역 봉사를 하는 시민

표지 사진 류창현

사진 © 김성환

김연식

인천 연안부두 앞에 선 김연식.
인천에 머물지 않았다면, 항해사 김연식도 없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그 길목에 인천

김연식은 아시아인 첫 그린피스Greenpeace 항해사이자 한국 유일의 시워치Sea-watch 활동가다. 현재의 김연식을 규정하는 수식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이야기였다. 20대 김연식은 인천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인천일보에서 근무하는 기자였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발 딛고 선 도시에 어떻게든 속해 있었다. 그리고 10년, 김연식은 지구의 일원으로 바닷길을 따라 세계를 누볐다. 항해사가 되어 36개국을 오가고, 그린피스 소속으로 지구를 지키고, 지중해에서 난민을 구조했다. 그 흔들림 없는 땅의 단단함을 뒤로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로 향하던 길목에, 인천이 있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자세한 이야기는 김연식 항해사 인터뷰 32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APRIL 2020
Vol. 316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0년 4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인쇄인
신봉훈(소통협력관)

편집인
백상현(소통기획담당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편집장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성환·류창현·최준근

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가기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CONTENTS

04 **인천 미소**
모두 한마음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外

06 **화보**
2020년, 봄

08 **코로나19 대응**
시민의 힘으로
현장 기록
현장 인터뷰

18 **인천의 맛**
⑧ 주꾸미

24 **'인천시 홍보대사' 가이드**
문학산 산행

28 **새로운 출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32 **인천, 사람**
④ 김연식 그린피스 항해사

36 **사월 풍경**
캠프마켓의 흔적과 기억

40 **내가 사랑하는 인천**
시인 신현수

42 **시민 시장**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고광필

44 **힘내라 인천**
방구석 생활 백서

46 **이미지 뉴스**
코로나19 극복하기

48 **시정 뉴스**
긴급재난생계비 최대 50만원 지급…
총 5,086억원 투입 外

52 **드로잉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54 **인포 박스**
사랑한다면, 면 마스크 사세요 外

58 **인천의 아침**
4·19 60주년, 민주화·노동 운동의 메카 인천

59 **인천사진관**
이유미 독자님 가족

※ 코로나19 대응 특별판 발행으로 이번 호 '메이커스, 인천'은 쉽니다.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모두 한마음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인천을 떠나 잠시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꽉 막힌 교통 체증 속에도 멀리 이정표에 보이는 '인천'이란 두 글자만으로 친근감과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인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요즘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도 크지만, 모두가 한마음이 된다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임홍숙 미추홀구 학익소로

평범한 일상을 위한 모두의 노력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에 지지와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투명한 정책과 신속한 동선 공개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의 의료진 여러분을 비롯해 함께 애쓰시는 우리 시 공무원분들과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김지만 연수구 송도문화로

인천을 이야기하는 인천의 작가들

이설야 시인의 인터뷰가 실린 '인천, 사람'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시인 중 한 명이자, 인천 시민인 이설야 시인의 진솔함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에 머물며 좋은 작품들 많이 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굿모닝인천>을 통해 더 많은 인천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지 부평구 길주로

차별 없는 세상, 행복한 인천을 꿈꾸며

장애인 체육 교사로 인천에 터를 잡은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시민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이 조금씩 완성되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차별 없는 인천, 장애인이 행복한 인천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안영국 남동구 호구포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www.facebook.com/incheon.gov
blog.incheon.kr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twitter.com/incheon_gov
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천시 미디어'
www.instagram.com/incheon_gov
www.weibo.com/i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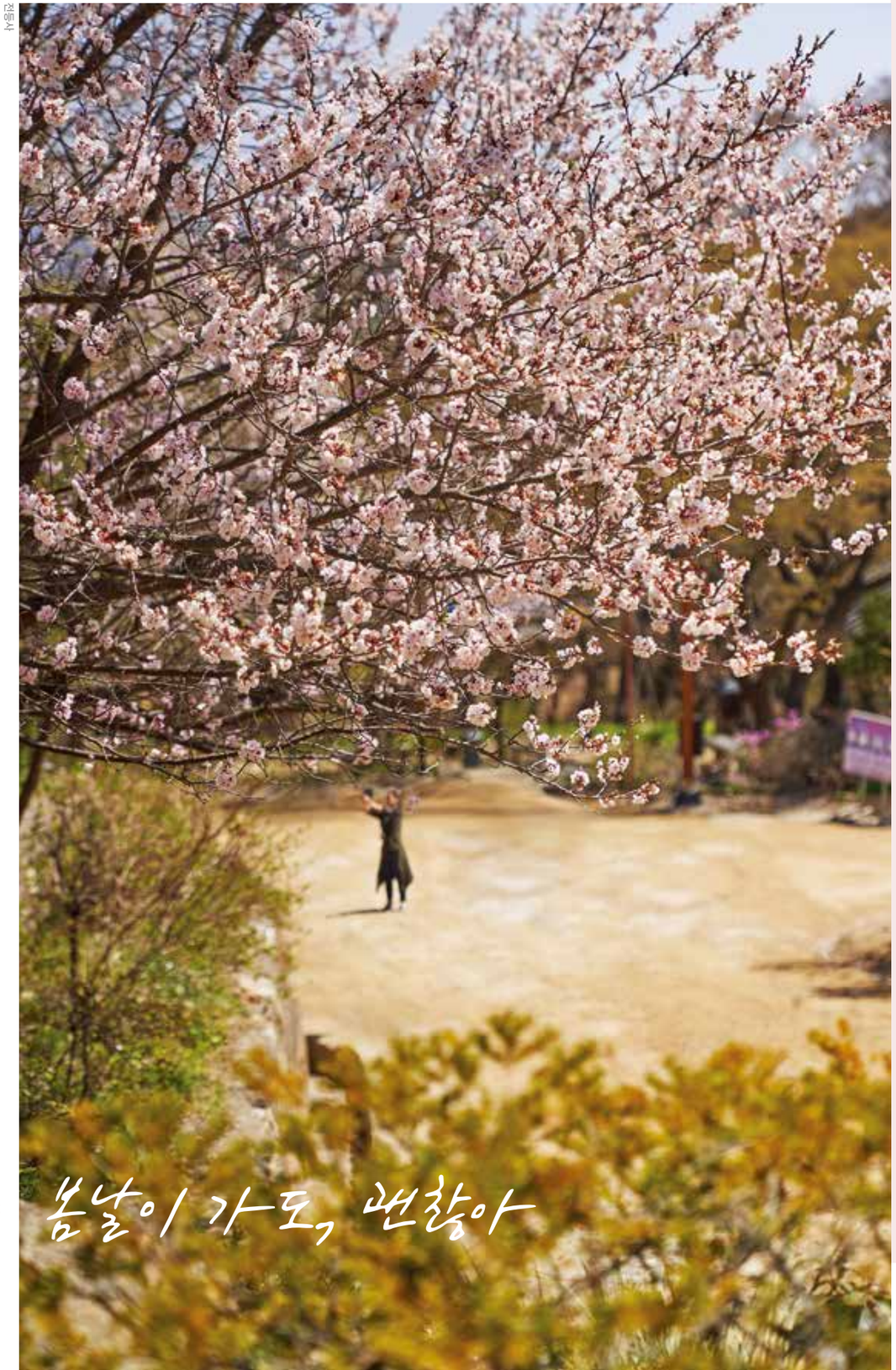
우 리 동 네

송현동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송현근린공원

글 **신은주(동구 송림동)**

동구에는 특색 있는 곳이 많다. 만석부두, 화수부두, 세숫대야 냉면 거리, 최초의 교육 기관, 공예 상가, 배다리 헌책방 거리, 화도진지, 배수지, 골목길 등은 동구 주민들과 삶의 역사를 이어가는 소중한 존재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곳은 '송현근린공원'이다.
아파트와 주택 속에 폭 안긴 공원은 부지가 넓어 한참을 돌아다녀야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언덕 위에 자리해 동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 역할도 한다. 공원 터는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 전쟁 피란민들, 산업화 시기에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다. 3,000여 가구가 살던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이곳에 2002년 솔빛마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원이 만들어졌다.
송현근린공원의 매력은 그 땅의 역사를 공원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항해하는 배를 닮은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에서는 1960~1970년대 달동네 서민의 생활을 만날 수 있다. 공원에는 아이들 놀이터, 어르신 쉼터, 운동 기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마련되어 있어 늘 사람들로 붐비고, 그들이 뿜어내는 활력은 행복한 삶의 원천이 된다.
공원의 자랑거리 물놀이터 '또랑'은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많다. 또랑 부근 너른 광장은 다양한 행사장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도서관과 평생 학습관, 배다리 전통 공예 상가, 청소년 수련관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오래전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심은 나무들은 재개발 속에서도 살아남아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오솔길과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 늘 푸른 나무들도 빼놓을 수 없다. 송현터널 위에 조성된 하늘생태정원은 튤립, 금송화, 구절초, 금계국, 국화, 백일홍, 천일홍, 맥문동, 홍설, 능소화, 데이지, 장미, 클레마티스가 피어 연중 사람들로 붐빈다.
송현근린공원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높아 미디어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명소가 됐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송현근린공원에서, 오늘도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자연의 매력을 발견하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2020 봄날이 가도, 변함아

2020년, 봄

자유공원

미처 몰랐습니다. '그 겨울'이 가고 '이 봄'이 왔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빛의 농도가 쌓여 초록 잎이 돋고 노랑, 빨강, 하양… 온갖 색이 어지럽게 터집니다. 바야흐로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여느 때라면 벌써 골목으로 거리로 동네 뒷산으로 나가 '봄맞이'했겠지요.
그런데 봄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바이러스가 무참히 앗아가 버렸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왔던 봄을. '잔인한 사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그립니다. 언젠가 '그해 봄'을 돌아보며 잘 이겨냈다고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을 수 있기를. 내일은 또 다른 더 나은 하루가 시작되기를.
그래요. 2020년 봄은 일생에 단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봄은 또 옵니다. 아픈 만큼, 강인하게 언 땅을 딛고 일어나 더 향기롭고 눈부시게 꽃을 피울 겁니다.
내일, 세상은 다시 봄입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1

2

3

코로나19 극복,

시민이 빛이다

코로나19.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면서 일상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시와 국가는 묵묵히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밤낮으로 맞서 싸웠다. 시민들은 힘들수록 '우리'를 떠올리며 남을 도왔고, 누군가는 그런 그들을 미안해 하고 고마워하며,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었다. 열린 바다와 하늘에도 낮은 코로나19 발병률을 유지하는, 재난에 소리 없이 강한 우리. 바로 인천 사람들의 이야기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1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래어시장으로 와 코로나19 방역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
2 모두 힘든 시간이지만, 괜찮다. 서로를 더 걱정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3 필터를 함께 재단하는 자원봉사자들. '사랑'은 그 어떤 필터보다 강력하게 바이러스를 막아낸다

현장 1 소래포구의 밤

이웃을 위한 또 다른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한 뒤 향한 곳은, 가족이 기다리는 집이 아니다. 오후 7시, 봄이라지만 아직 밤공기가 찬 남동구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어둠 속 켜지는 불빛을 따라 방역복을 입고 소독약 분사기를 든 사람들이 모여든다. 코로나19에 맞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우리 이웃들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군·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기와 약품을 배부하며 자원봉사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상(58) 씨는 남동구 자율방범연합회 회장이다. 그는 부평에서 종일 기계와 씨름하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곳으로 달려왔다. 모두 어려운 요즘, 그도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 일이 줄어들어 직원들 월급 챙겨주기도 빠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남, 이웃을 먼저 생각한다. "봉사하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이겨내야죠."

전승경(62) 씨는 논현 1동 자율방범대 대장이다. 평소에도 일주일에 두 번 밤거리를 돌며 동네를 지킨다. 그의 삶의 터전은 한 칸짜리 택시다. 오늘도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8시간 운전대를 잡았다. 이제 시동을 끄고 한숨 돌려야 할 터인데, 굳이 차가운 밤거리로 나섰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서야지요." 고맙다, 수고한다는 이웃의 격려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난다.

현장 2 신기시장의 아침

텅 빈 시장을 채우는, 36.5도의 온기

미추홀구의 신기시장. 평소 같으면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왁자지껄할 전통시장이 한산하다. 그래도 상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었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들이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은 계속된다.

이유순(67) 어르신은 시장통에서 뜨거운 불솥 옆을 지키며 20여 년을 살았다. "요즘에 장사가 잘되면 어디 정상인가. 그래도 모두 어려울 때, 이렇게 애써주니 힘이 나요." 상인회의 요청으로 이른 아침부터 시장 방역에 나선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두고 하는 말이다.

"힘들수록 서로 도와야죠. 나와 이웃, 나라를 위해서. 협력이 아니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어요." 김남순(66) 주안7동 방재단장의 의지는 결연하기까지 하다. 묵묵히 땀 흘리는 그의 뒤로 마침 태극기가 휘날린다. 방역 봉사단이 시장 골목을 지날 때마다 상인들은 '고맙다' '밥은 먹었느냐' 따듯한 인사를 건넨다. 모두 힘든 시간이지만,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서로를 더 걱정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다.

코로나19.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면서
일상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함께라면',
언젠가 오늘의 시름이
의미 있는 싸움으로 기억될 것이다.

 # 현장 3 여성복지관·여성가족지원센터의 오후

사랑한다면, 면 마스크 하세요

'드르륵드르륵'.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멈출 줄 모른다. 오후 1시 미추홀구에 있는 여성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이웃에게 보낼 면 마스크를 만드느라 분주하다. 벌써 세 시간째,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사랑을 담고 마음을 새기고 있다. 시와 군·구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은 시의 지원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0일간, 여성사회교육시설에서 필터 교체 면 마스크 1만 개를 만들어 환경미화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전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뻐요." 이영순(68) 어르신은 평소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께 하모니카를 불어주는 봉사를 했다. 코로나19가 돌면서 본인도 힘들어졌지만, 그보다 자신을 기다릴 어르신들이 걱정이라고 했다. 내 이웃을 위한 마음을 멈출 수 없어, 오늘도 이렇게 내 몸을 부리며 사랑을 채워간다.

부평구에 있는 여성가족지원센터에서도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과 여성가족지원센터 직원들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손을 보탰다. "생각보다 힘들어서 하루 200개 채우기도 쉽지 않네요. 그만큼 봉사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김미영 시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곳으로 출근했다. 힘들어도 표정은 밝다. "곧 지나갈 테니 함께 힘내요. 세계 언론도 칭찬하는 우리잖아요."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 황혜경(54) 씨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꼬박 면 마스크를 만들었다. 자욱한 먼지 속에 재봉틀과 가위질 소리가 흩어진다. 몸은 고되어도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기쁨이자 보람이라는 사람들. 그들의 따듯한 손끝에서 완성된 마스크가 내 이웃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줄 것이다.

1 '힘이 될 수만 있다면.' 택시 기사 아버지는 8시간 운전대를 잡은 후, 밤 어시장으로 달려와 소독약 분사기를 들었다.
2 먼지 속에서 하루 6시간, 꼬박 재봉틀을 돌려도 힘들지 않다. 내 이웃의 행복한 일상을 지킬 수 있다면.

자원봉사자를 돕는 소래어시장 상인.
식당 안 테이블은 텅 비어 있다.
힘든 시절, 서로를 더 걱정하는 마음이,
코로나19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에 맞서는 사람들

코로나19, 시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힘내요. 대구!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보탰으면 합니다. 인천 시민 드림.' 지난 2월 28일, 일흔 정도 돼 보이는 어르신이 인천시청에 찾아와 만 원짜리 24장이 든 봉투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 안엔 한 자 한 자 마음을 다해 눌러쓴 손 편지가 담겨 있었다.

힘들수록 우리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누구랄 것 없이 먼저 나섰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완치 후 퇴원한 인천의료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24시간 불을 켜고, 코로나19 가검물 등의 검사에 비상대응하고 있다.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간다'. 한림병원 의료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대구·경북지역으로 달려갔다. ◇3,500여 명의 엄마들은 어려울수록 배고픈 아이들을 떠올렸다. 인천 서구지역 맘 카페 '너나들이 검단·검암맘'과 '달콤한 청라맘스'는 지난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자'를 전했다. 처음엔 모금액 1,0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틀 만에 목표액을 훌쩍 뛰어넘은 2,274만원을 모았다. 이들은 서구보건소와 인천의료원 직원들에게도 600인분의 간식으로 따듯한 위로를 건넸다. ◇'착한 임대인 운동'도 인천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도 어렵지만 힘냅시다." 당장의 밥벌이를 걱정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깎아주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다. 3월 24일 현재 기준 42개 지역 772개 점포가 뜻을 모았다.

◇우리 시도 코로나19가 고개를 든 지난 1월 말부터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돕고 있다. 앞서 말한 방역 활동 및 면 마스크 제작 지원과 함께,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헌혈에 동참하며, 무료 급식소 폐쇄로 배고픈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고, 주요 환승 지하철에서 열 감지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다. 지금 힘들지만,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잠시 움츠러든 것. 우리는 믿는다. '함께라면'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열리고, 언젠가 오늘의 시름이 의미 있는 싸움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1 인천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2 인천의료원 음압격리실
3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센터
4 부평전통시장 방역 모습
5 코로나19 확산대비 입원환자 소산 현장
6 계양역 방역 모습

코로나19와의 싸움 그 긴박했던 60일간의 기록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바꿔놓았다. 마스크와 소독제 구하기, 모임과 외식 자제가 일상이 되고 새 학기는 연거푸 미뤄졌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았고 축제와 행사도 모두 취소됐다.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인천은 내·외국인의 입출국이 잦은 만큼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컸지만, 모든 행정기관과 시민들이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인천시는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은 도시'를 유지하고 있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시 대변인실

24시간 안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따르르릉~' 새벽 1시, 전화벨이 울린다. 새벽 시간에 울리는 전화벨은 좋은 소식보다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가 많다. 역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확진 환자를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가족의 검체를 채취하고, 집에 대한 방역을 동시에 진행한다. 또 급파된 역학조사관이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한밤중이라도 파악된 동선에 대한 방역은 물론이고 접촉자를 찾아내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를 즉시 진행한다. 긴박한 이 모든 상황이 인천에서는 모두 24시간 내에 이뤄진다.

"수도권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하루만 늦춰도 환자의 접촉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천시가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은 비결은 각 보건소에 핫라인을 구축해 확진 환자 입원 관리와 검체 채취, 방역과 접촉자 관리 등 모든 과정을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원데이 시스템'에 있다고 설명한다.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 위한 전략적인 의료 대응체계 가동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관문 도시라는 특성상 감염병 확산 우려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모든 행정기관과 시민들이 협력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중이다. 시는 우선 인천시교육청, 인천소방본부, 공항·항만공사, 지역 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철통 방어 체계를 가동했다. 또 진료 역량 강화 및 격리 병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인천의료원 등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특히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은 선별진료소 기능을 중단하고 확진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했다. 대신 검사 속도가 빠르고 감염 위험이 없는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항과 인천항의 방역도 대폭 강화했다. 검역 단계에서 철저하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여행객은 출입국 시 발열 측정 및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는 등 검역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보이면 즉시 격리 조치된다. 또 해외 거주 한국인의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격리 시설인 생활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노인·장애인·요양병원 등에 대한 점검과 방역도 완료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인천시의 다각적인 대응체계와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의식이다. 다행히 인천 시민의 예방수칙 준수는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인천의 세 번째 확진 환자였던 문화해설사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꼼꼼하게 일지를 작성해 접촉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전 국민의 귀감이 됐다. 자가격리 중이던 서구의 한 시민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보건소 구급차를 타기 위해 아파트 23층에서 계단을 통해 걸어 내려와 접촉자의 수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사용' '손 씻기' 등 비약물적 중재가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임시 폐쇄, 개학 연기에 따른 조치 및 청소년 생활환경 점검, 외출·모임(행사)·면회 자제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요양원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공무원 일대일 밀접전담제, 콜센터 전수조사, 자가격리자 일대일 전담공무원제, 소외 계층 마스크 제공 등을 통해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 개학 전까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이렇게 예방했습니다.

—

사실상 인천 시민 첫 확진 환자의 배려

외출 시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마스크와 장갑 착용

선별진료소를 사전에 확인 후
선별진료소 격리병동만 방문

자가격리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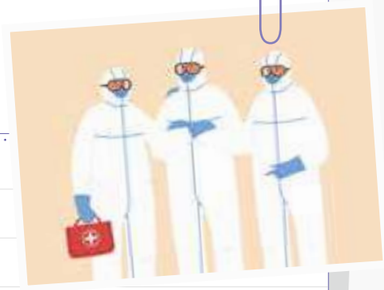
지속적으로 증세와 동선 등을
기록한 일지 작성

대부분 도보로 이동하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
사람 없는 곳으로만 다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구내식당에서 비대면 식사를 하고 있는 인천시.(왼쪽)

모범적인 예방수칙 준수로 2차 감염을 막았던
인천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사례에 대한 홍보 동영상.(오른쪽)

날짜별로 살펴보는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1월 3일
시, 군·구 감염병대책반 구성·운영

1월 20일
시 방역대책반 구성 및 24시간 운영체계 돌입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 환자인 중국인 인천의료원 입원

1월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가동, 긴급 업무체계 운영

2월 1일
공공체육시설 공공도서관·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휴관

2월 2일
경제대책반 운영, 긴급 예산 27억원 신속지원

2월 5일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 250억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2월 12일
중소기업육성자금 650억원 긴급 지원

2월 17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2월 20일
정부보다 먼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가정, 선제적인 조치 시행

2월 21일
신천지교회 및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완료

2월 23일
정부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맞춰 즉각 강도 높은 총괄 대책 마련

- 인천지역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 긴급 지원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인하대병원, 가천대길병원)
- 어린이집 휴원 조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 시행
-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긴급 휴관
- 군·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면 중단
- 종교활동 자제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대외활동 자제 요청

2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

2월 27일
인천e음 캐시백 10%로 상향
관광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월 2일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센터 운영

3월 9일
마스크 5일제 배급에 따른 약국 지원인력 파견

면 마스크 제작 지원

요양병원 1:1전담제 실시

3월 10일
확진 환자·격리자 등 심리지원 강화

3월 11일
WHO,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

3월 15일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강화

3월 18일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 경영안정자금 지원

3월 21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집중 전개

3월 22일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3월 24일
임신부, 취약계층 등에 마스크 30만 개 긴급 지원

3월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경제지원대책 발표

·
·
·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위해 발 벗고 나선 현장의 영웅들이 있다. 코로나19와 대치하는 최전선의 영웅들을 만나봤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센터’ 처음 제안한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실내에서는 환기 횟수 때문에 검사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야외라면 자연 환기가 되므로 검사 횟수를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 환자를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한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센터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은 한 사람 검사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일반 선별진료소와 달리 10분이면 검체 채취가 가능하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제안한 사람은 김진용(45)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이다. 그는 코로나19 국내 1번 확진 환자의 주치의이기도 하다. 김 과장은 인플루엔자 팬데믹과 생물학적 테러 상황에서 대규모 검사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다룬 해외 논문에서 힌트를 얻어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면서 검사·진료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운동장에 선별진료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실내에서는 환기 횟수 때문에 검사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야외라면 자연 환기가 되므로 검사 횟수를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오염 없이 많은 사람을 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의료진 안전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고요.”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센터는 입장, 접수, 문진, 검체 채취, 검사 후 안내, 퇴장 순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전 과정 동안 피검사자는 자신의 차량에 계속 머물고, 의료진과 대부분 휴대전화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접촉을 최소화한다. 자동차 환기 시스템도 내부 순환 상태로 둬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약 10분이면 끝난다.

김진용 과장은 빠른 검사도 중요하지만,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약물적 중재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비약물적 중재로 급속한 확산을 막아야 하는 일에 정책 결정자와 국민이 합심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 비약물적 중재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공황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확진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장한아람 역학조사관.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달려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진 환자의 기억과 정보의 틈을 메우는 것이 역학조사관의 몫이다.

‘확진 환자 동선’ 파악하고, 방역 대책 세우는 **장한아람 역학조사관**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정보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동 경로’다. 사람들은 확진 환자가 다녀간 지역과 장소를 피해 감염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이동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모두가 기피하는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하지만 확진 환자가 나올 때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진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는 역학조사관들이다.

인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최전선에 있는 역학조사관 장한아람(33) 씨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초기 신속한 역학 조사를 통해 확진 환자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감염병 발생 원인과 특성을 파악해 전염병 확산을 막고 방역 대책을 세운다.

“역학 조사에 대한 지침은 두꺼운 책 한 권 정도 되는 분량인데, 보건소 직원이나 전담 인력들이 확진 환자의 동선을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역학 조사와 확진 환자 인터뷰에 대한 인천시만의 매뉴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장 조사관은 확진 환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본적인 이동 동선을 파악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진 환자가 집에서 나온 시간과 집으로 들어간 시간. 그 시간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고, CCTV와 카드 결제 내역, 휴대전화 GPS 내역을 통한 정보를 가지고 동선의 퍼즐을 맞춰나간다.

“기억과 정보의 틈을 메우는 건 역학조사관의 몫이죠. 확진 환자가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본인 휴대전화를 보라고 합니다. 전화 내역이나 카톡을 보면 본인이 그날 어떤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누구랑 뭘 했는지 등 그날의 일을 조금 더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중간중간 빈자리를 끌어내는 게 노하우입니다.”

장 조사관은 초반에는 사람들이 사생활이라는 생각에 동선을 밝히기 꺼렸지만, 지금은 확진 환자들 스스로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동선에 포함된 장소라도 방역이 이뤄진 이후에는 공간 이용에 문제가 없는 만큼 시민들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영상 보기

전통 어로 방식인 '소라방'으로 주꾸미를 잡는, 길정호 사람들.

파도 소리 너머 봄

소라방 주꾸미

취재 영상 보기

인천의 맛

인천만의 '그 맛'이 있다. 지역 음식에는 고유한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끝낼 일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인천의 산과 들에서 자라고, 바다와 갯벌에서 펄떡이고 있을 먹거리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맛을 기록한다. 그 여덟 번째는 서쪽 바다 깊숙이에서 건져 올린 봄, 주꾸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서쪽 부둣가에
봄이 오다

길정호 선원이 소라방 줄이 묶인 깃대를 바다에 던지고 있다.

삼월의 새벽 바다는 매몰차다. 육지엔 봄기운이 돌지만 바닷가엔 소금기 짙은 찬바람이 분다. 오늘은 바람이 더 세차다. 자연은 고된 항해를 앞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는 법이 없다.

새벽 다섯 시 반, 동구 화수부두. 잠든 세상 속 출항을 기다리는 어선들 사이에 분주함이 새어 나온다. '길정호'가 부둣가를 빠져나가 바다로 나아간다. 요란한 엔진 소리가 잠에서 덜 깬 세상을 뒤흔든다. 어부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 끈끈한 바닷바람이 스친다. '다방 커피' 한 잔으로 빈속을 달랜다. 이제 열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어구를 던지고 올리며 몸을 움직여야 한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 검은 수평선을 바라보던 뱃사람의 목소리가 엔진 소리를 비집고 나직이 들려온다.

박현기(70) 어르신은 한창때 송현동에서 잘나가는 중식당 사장이었다. 인천제철(현 현대제철) 앞에서 가게를 했는데, 외상 없이 무조건 현찰에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장사가 잘됐다. 2년 만에 집을 샀다. 하지만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주방을 나와 55세의 나이에 미화원이 되어 정년까지 마치고, 60세가 되던 해에 배에 올랐다. 지금 파도가 달려드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가, 그의 삶 최전선이다.

30분쯤 갔을까, 인천대교가 보이는 멀지않은 바다에 이르렀다. 곳곳에 어장을 알리는 깃발이 꽂혀 있다. 배는 열 시간을 바다 위에 떠 있을 거라고 했다. 오전 내내 바람이 세차게 불어 파도가 요동치고 배가 출렁거린다. 쏟아지는 뱃멀미. 육지가 지척인데도 닿을 수 없으니 겁 없이 배에 오른 게 후회스럽다. 하지만 바다 위 '극한 직업'이 누군가에겐 일상이 아니던가. 미안함에 약한 마음을 겨우 억누른다.

뱃일을 하다 한숨 돌리는 박현기 선원. 그의 얼굴이 진흙투성이다.(가운데)
낮 12시가 다 되어 먹은 첫 끼, 바다 한가운데 차린 최고의 밥상.(오른쪽)

항해 10시간 만에 닻을 내린 길정호.
선장의 아내가 연안부두로 마중 나와 주꾸미를 경매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도왔다.

"욕심부릴 필요 뭐 있나.
적당히 먹고살 만큼만 낚으면 되지."
평생 자연에 빚지며 살아가는 것을
미안해 하고 또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다에 빚지며 살아가는 삶

바다 깊숙이 소라방 속 보물

정약전의 <자산어보茲山魚譜>는 주꾸미를 준어蹲魚, 속명을 죽금어竹今魚라고 이른다. '웅크린 물고기'라는 뜻이다. 주꾸미는 한겨울을 바다 깊숙한 바위틈에서 지내다, 봄이 오면 알을 잔뜩 품고 연안으로 올라온다. 산란하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키던 주꾸미는 '그만' 어부의 그물에 낚이고 만다.

해마다 주꾸미 철이면 큰 배들은 먼바다로 나아가 긴 주머니 모양의 통그물 안강망을 던진다. 길정호는 선원 서너 명이 타는 4t짜리 작은 배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어로 방식인 '소라방잡이'를 한다. 화수부두에는 길정호처럼 소라방으로 주꾸미를 잡는 작은 어선이 아직 많다. 거대한 공장 건물 담장을 끼고 한참을 들어가야 만나는 이 낡은 부두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만선으로 출렁거렸다. 가깝게 강화도부터 멀리 충청도와 백령도, 연평도 배까지 드나들었다. 그러다 1973년 연안부두가 생기고, 인천제철이 바다를 매립하면서 진동하던 생선 비린내가 지워져갔다. "안강망 큰 배가 멀리서 드나들 땐 번성했었어. 육지에서는 꽁보리밥을 먹어도 배 위에선 쌀밥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어판장이 사라지고 공장이 바다를 잠식하면서 부두를 버려놓았지." 양계영(63) 선장은 충남 서산에서 인천으로 와 30여 년 배를 탔다. 그는 태어난 마을은 비행장이 들어서 사라졌다며, 화수부두가 뼈를 묻을 고향이라고 했다.

"자자, 어서 움직이자." 선장의 외침에, 고참 선원이 바다에 꽂혀 있던 깃대를 힘껏 끌어올려 도르래에 건다. 그 끝엔 소라 껍데기가 주렁주렁 달린 줄이 매어 있다. 지금은 나일론 줄을 쓰지만 예전엔 짚으로 새끼줄을 꼬아 일일이 소라를 매달았다. 이 줄을 수심 10m 안팎의 연안에 가라앉히면, 알 낳을 곳을 찾던 주꾸미가 제 앞날도 모르고 소라방으로 숨어들어간다. 그러면 어부들은 이 줄을 바다 위로 끌어올려 '보물'들을 낚는다.

선원이라고 해야 일흔 된 뱃사람과 2년 남짓 배를 탄 인도네시아 청년 둘이 전부다. 셋이 힘을 모아 줄을 잡아당기며 차례로 딸려 나오는 소라 껍데기를 확인한다. 날것이 꿈틀거리면 쇠꼬챙이로 사정없이 끄집어내 통 안으로 냅다 던진다. 때론 갈고리를 쥔 손이 허공을 헤매기도 한다. 보통 서너 개 중 두 개꼴로 빈방이 난다. 어획량이 그 물을 던지는 것에 훨씬 못 미치지만 아쉽지 않다.

"소라마다 다 주꾸미가 들어 있으면 배에다 싣지도 못하게. 욕심부릴 필요 뭐 있어. 자식들하고 먹고살 만큼 적당히 벌면 되는 거야." 바다의 산물을 어찌 욕심에 가두랴. 25년을 동고동락한 낡은 배와 삶의 터전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준 바다가 고마울 뿐이다.

이후로 오랫동안, 길정호 사람들은 소라방이 달린 줄을 끌어올려 주꾸미를 잡고 다시 줄을 내리고를 반복했다. '탁탁' 소라 껍데기가 배 난간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온다. 길고도 힘겨운 시간이 이어졌다. 오후 세 시 반이 되어서야 배는 뭍으로 향했다.

오늘은 주꾸미를 240kg이나 잡았다. 평소보다 많은 양이지만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그만큼 가격은 내려간다. 이는 바닷일이 하루 시원찮다고 하더라도 살기 팍팍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주꾸미는 제철을 맞는다. 서쪽 바다의 봄은 그렇게 시작된다. 사실 산란기에 주꾸미를 잡는 건 꽤나 미안한 일이다. 사월 주꾸미 철이 지나면 곧 금어기가 온다. 그래도 뱃사람들은 오월 햇살 아래 꽃게를 잡고, 가을이면 전어를 낚으며 여전히 바다에 머물 것이다. 평생 자연에 빚지며 살아가는 것을 미안해 하고 또 고마워하며.

이 봄,
단연 주꾸미

불현듯 나타난 신종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봄 보약 주꾸미로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자. 문어도 낙지도 아닌 것이 짜리몽땅하게 못생겼지만 맛과 영양은 그만이다. 4월이면 주꾸미는 한창 물이 오른다. 전통 어로 방식인 소라방으로 잡으면 스트레스가 없어 육질이 연하고 맛이 뛰어나다. 대부분 산란하기 위해 숨어든 터라 알도 꽉 들어차 있다. 타우린과 철분의 함유량도 높다. 주꾸미 금어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저장 기술이 발달해 어느 때라도 주꾸미를 맛볼 수 있지만, 제철 맛을 따라올 수는 없다. 서두르자. 이때를 놓치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 화수부두로 달려가, 바다 깊숙이에서 건져 올린 봄을 맛보자.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취재 영상 보기

화수부두회센터 대인8호
인천시 동구 화수부두로 28
Ⓣ 032-777-7916

화수부두 막내, '대팔이네' 며느리 손맛

대인8호, '대팔이네' 며느리 김숙희 씨
의정부에서 화수부두가로 시집와, 배 타고 회도 뜨며 산다.
"엄청 후회하죠." 말은 그리해도 표정이 참 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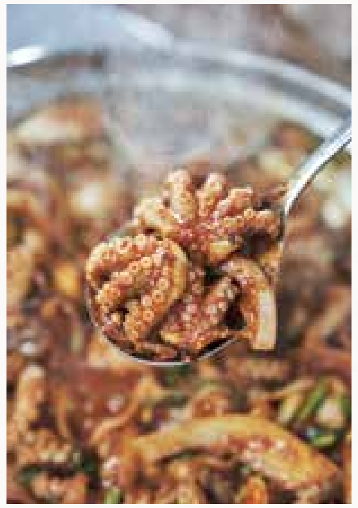
"오늘 바람이 불어서 작업하기 힘들었겠어요." 화수부둣가에서 횟집을 하는 김숙희(47) 씨가 항해를 마친 뱃사람들에게 건네는 말에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지 때부터 몰던 배를 남편과 함께 타고 날것을 부둣가에서 팔며 살아온 그다. 배 이름은 '대인8호'. 동네 사람들은 그를 '대팔이네' 며느리라고 부른다. 2년 전 식당 문을 열면서 바닷일에서 해방됐지만, 지금도 일손이 부족하면 배에 오른다.
배를 부리는 횟집이 몰려 있는 화수부두 일대에서 그는 막내로 통한다. 아직 배울 게 많다고 겸손하게 말해도, 바닷가로 시집와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려온 솜씨다. 철마다 바다에서 나는 재료로 어떤 요리든 척척 해낸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려 펄떡이는 식재료는, 산지에서 누리는 특권. 해감하는 것부터 다르다. 살아 있어서 흐르는 물에 몇 번만 닦아내도 깨끗하다. "요즘 주꾸미는 살이 연하고 통통한 데다, 알이 꽉 들어차 있어 맛있어요." 부드럽게 데친 주꾸미를 입안에 넣고 톡 터트리면 쌀알 같은 알들이 쏟아져 내린다. '아, 바다의 맛이로구나.' 짭조름한 바다 향과 탱글탱글하면서도 보들보들한 식감. 배가 쉴 새 없이 드나드는 부둣가가 보이는 밥상, 그 맛의 차이는 분명하다.

만석동을 지켜는, 주꾸미 할머니 손맛

할머니표 양념은 맵지 않고 맛있다.
그 양념을 싱싱한 주꾸미와 미나리에 잘 버무려
지글지글 볶아내면 겨우내 무뎌진 입맛이
확 살아난다.

우순임원조할머니주꾸미
인천시 동구 제물량로 340-1
Ⓣ 032-773-2419

동구 만석동 주꾸미골목은 4월이면 주꾸미 볶는 냄새로 진동한다. 이 골목의 원조는 우순임(87) 할머니다. 그의 삶은 얼굴에 파인 주름처럼 굴곡이 깊다. 할머니는 6·25전쟁 때 황해도 연백에서 군산으로 피란을 갔다 서른 살에 인천으로 왔다. 남편을 여의고 만석고가 밑에서 포장마차를 하며 자식 넷을 키웠다. "눈 똑바로 뜨고 맨발로 뛰었어. 나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들을 굶길 수는 없으니까." 어느 날은 한 단골손님이 서울 무교동에선 낙지볶음이 잘 팔린다며 해보라 귀띔을 해줬다. 결과는 '대박'. 할머니 집을 시작으로 만석동 일대에 주꾸미집이 하나둘 생겨났다. 봄이면 바다에서 잡아 올린 주꾸미들이 배에서 내려 이 골목으로 행차하고, 가을이면 양념으로 쓸 고추가 길가에 빨간 융단처럼 깔린다.
할머니네 주꾸미집은 이제 전국에서도 찾는 명소다. "아이고, 고생 많이 했지. 돌이켜보면 '구루마' 끌고 장사하던 내가 어떻게 이 가게를 차리고 건물까지 샀나 싶어." 봄꽃처럼 화사했던 시절은 없었다. 그래도 젊은 시절을 치열하게 산 덕에, 지금 아들딸 며느리에게 큰소리 뻥뻥 치고 산다며 할머니가 웃는다.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좀 냉정해." 말은 그리해도 할머니는 정이 깊다. 나이 지긋한 단골들이 오면 앞으로 또 못 볼까 싶어 음식을 따로 싸주고, 원조집 때문에 행여 다른 집들 장사가 안 될까 싶어 재료가 떨어졌다며 손님들을 돌려보내기도 한다. "저울의 개념으로 장사하면 안 돼요. 음식은 파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할머니의 철학은 큰아들 김홍명(60) 씨가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다.
해가 지고 후미진 골목에 불빛이 차오르면, 할머니 손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연다. 할머니가 60여 년째 만석동 골목을 지켜줘서, 또 자식들에게 '이래라저래라' 잔소리를 할 만큼 건강해서 고맙고 다행스럽다.



역사의 첫 페이지를 오르다

볼거리, 즐길 거리 많은 인천, 그 안에서도 진주처럼 숨은 명소가 더 있다는데. 구석구석 보물처럼 반짝이는 그곳을 특별한 가이드가 안내한다.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와 함께 떠나는 당신이 몰랐던 인천. 그 네 번째 주인공은 청년 스타트업 대표 이미진 씨다. 최근 시와 시민 단체가 함께 토양 오염 문제를 해결한 문학산에 올랐다.

글 **전규화 자유기고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문학산 정상에 오르면,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오늘에 이른 인천의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인천의 진산鎭山, 문학산

인천의 역사는 문학산과 함께 시작됐다. 217m.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인천 시민들에게만큼은 태산泰山보다 높으리라.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다시금 북적일 정상의 모습을 그려본다.

위치 미추홀구 문학동 일대

오늘의 인천을 있게 한 시작점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 하지만 다행이다. 서서히 봄이 오고 있음을 직감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눈치 보듯 수줍게 봄꽃도 피었다. 이미진 씨는 그 꽃을 보여주고 싶다 했다. 다시금 상춘객들로 북적일 그날을 고대하며 문학산 정상으로 향했다.

“평소 산행을 즐겨요. 건강은 기본이고, 상념까지 털어낼 수 있다는 게 매력이죠. 문학산, 계양산, 청량산…. 인천은 도심 가까이서 산행을 즐길 수 있어 좋아요. 그중에서도 문학산은 특별해요.”

문학산은 인천의 진산鎭山이다. 그 옛날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는 아름다운 서쪽 바다를 품은 문학산에 터를 잡았다. 미추홀. 인천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217m의 높지 않은 산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사방으로 펼쳐진 도심의 풍광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허나 이러한 가슴 벅참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학산 정상은 밟아볼 수 없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 1965년부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은 문학산 정상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2015년 10월 15일, 마침내 미추홀 고도古都에 시민의 발길이 닿았다. 50년 만이었다.

“문학산은 인천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자부심이에요. 정상이 개방되면서 인근 지역 사람들도 문학산을 자주 찾곤 하죠. 그들에게 인천의 역동적인 발전상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워요.”

정상에 마련된 두 곳의 전망 데크에서는
인천 원도심과 신도시를 모두 조망할 수 있다.

2015년 10월 15일. 역사적인 문학산 정상
개방을 기념하는 표지석이 놓였다.

살아 숨 쉬는 도시의 역사

문학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선학역 부근과 문학장미공원을 통하는 길 외에도 10개가 넘는 입구가 있다. 그 덕에 인천 도심 어느 방향에서든 손쉽게 등산로로 접근할 수 있다.

“오늘은 문학산 정상 개방 당시 시민들이 이용했던 방향으로 갈 거예요. 3분의 1 지점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어 오랜 시간 산행하기 힘든 분들도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코스거든요.” 50년간 굳게 닫혔던 철문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흐뭇하게 바라본다. 부쩍 따스해진 날씨 덕에 산행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정상까지는 1km 남짓. 나무 데크로 된 계단 길과 시멘트 길, 입맛대로 오르면 된다. 흙을 밟을 수 없어 아쉽다면 내려갈 땐 다른 길로 향하면 그만이다.

10분쯤 올랐을까. 푯말이 ‘삼호현’을 가리킨다. 삼호현은 문학산과 연경산 사이의 좁다란 고갯길이다. 옛날 중국으로 가던 사신들은 부평 별리현(비류고개)을 거쳐 삼호현을 넘어 능허대로 갔다. 배웅 나선 가족과는 별리현에서 이별했다. 사신들은 삼호현에서 별리현에 있는 가족을 향해 큰 소리로 이별 인사를 세 번 외치고 고개를 넘었다. 그래서 삼호현三呼峴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삼호현은 사모지고개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학산에는 유서 깊은 장소가 많아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호 문학산성, 조선 시대 인천 유일의 사액 서원(왕으로부터 편액·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받아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인 학산서원이 자리했던 터, 갑옷에 얽힌 설화가 전해지는 갑옷바위 등이죠. 산 그 자체가 인천의 살아 있는 역사인 셈입니다.”

청량한 바람, 기분 좋은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며 걸음을 옮긴다. 바다처럼 푸른, 뻥 뚫린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고, 이내 정상에 다다른다.

빼곡하게 담긴 시민들의 소망과 염원이
문학산의 정기를 받아 꼭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인천의 자부심, 시민의 저력으로

문학산 정상의 모습은 이채롭다. 흔히 산꼭대기 하면 떠오르는 모습과는 달리, 널찍한 마당처럼 펼쳐진 모양새다. 그 덕에 탁 트인 개방감을 몇 배는 더 만끽할 수 있다. 정상 개방을 기념하는 표지석 뒤편에는 ‘미추홀 고도古都, 문학산 날개를 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두 개의 전망 데크에는 문학산 정상에 오른 시민들의 소망과 염원이 담긴 쪽지가 빼곡하다.

동쪽 방향 데크에 오른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젖줄이자 시민의 오랜 삶의 터전인 원도심이 한눈에 펼쳐진다. 걸음을 옮겨 반대편으로 향하면 글로벌 도시 인천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와 드넓은 바다가 두 눈을 채운다.

“정상에 오를 때마다 인천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산자락에 터를 잡고 시작된 도시가 어찌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할 정도죠. 부모님도 저도 모두 인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 애향심이 각별해요.”

이미진 씨는 인천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시민 홍보대사에 지원했다. 태어나 인천을 떠난 적 없고, 지난해 신접살림도 인천에 차렸다. 2018년 11월에는 정부 지원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어 온라인 홍보 마케팅 분야 스타트업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사무실도 인천.

“뼛속까지 인천 사람이에요. 개인과 회사, 인천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걱정이지만, 문학산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른 인천과 시민의 저력을 믿고, 함께 헤쳐나가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문학산 토양 오염, 시와 시민이 함께 해결

우리 시가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문학산 토양 오염 문제를 해결했다. 시와 시민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모범 사례이자, 전국 최초 정부 주도 정화 사업 방식 도입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도 따라왔다. 문학산 토양 오염 문제는 2000년 인천녹색연합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2012년 수인선 공사에 따른 오염이 재차 확인되며 환경 이슈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는 면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주도하에 오염 정화가 이뤄지도록 법 개정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고, 전액 국비 사업으로 문학산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을 추진, 지난 2월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약 77억원의 귀한 예산을 절감했다.

문의 시 환경정책과 032-440-354

새벽 4시 30분. 활기 넘치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과일동 경매장.

취재 영상 보기

“도매시장 아닙니다. 소비자 위한 ‘농식품 복합 타운’입니다”

1994년 개장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이 지난 2월 27일 문을 닫고, 3월 2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재탄생했다. 소매 중심의 시장통 이미지를 벗고 중서부 거점 도매시장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넓고 깔끔한 실내에서 진행되는 새벽 경매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 깜깜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도착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하 남촌도매시장).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크고 깔끔한 외관과 환한 조명은 이곳이 새롭게 문을 연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려준다. 깜깜한 바깥세상과는 달리 시장 안은 마치 대낮처럼 환하다. 깨끗하고 널찍한 경매장 안에는 딸기, 토마토, 한라봉, 참외 등 탐스러운 과일들이 가득하다.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된 과일동의 경매. 경매사의 입에서 알아듣기 힘든, 주문과도 같은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진다. 한 손에는 경매 단말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상자를 열어 상품을 살피는 중도매인들의 손길은 점점 바빠진다. “9,000원에 자~ 310호!” 2시간 남짓 경매가 끝나자, 낙찰받은 중도매인들은 상품을 옮기고,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한다.

“현대화된 시설에서 경매가 이뤄져 좋습니다. 예전에는 장소가 협소해 야외에서 경매를 진행해 날씨의 구애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차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안심하게 되더라고요.” 박성옥(64) 덕풍청과(주) 중도매인조합장은 구월동에선 소매상들이 주차가 힘들어 아예 서울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며, 새로 바뀐 시설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낸다.

박성옥 중도매인조합장. 현대화된 시설로 이전한 만큼 영업력을 더욱 확대해 볼 생각이란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주차 요금은 5월까지 무료.
6월부터 주중 입차 후 1시간 무료, 입차 후 2시간까지 1,000원, 2시간 초과부터는 30분당 500원.
공휴일과 주말은 무료 개방한다.

시설 현대화로 이용자들 만족도 높아

4개 도매 법인과 360여 개 중도매인 점포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하 구월도매시장)을 떠나 '남촌시대'를 열었다.

구월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들이 점포 없이 경매장과 매장 밖으로 이어지는 공간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좁은 통로를 다니며 불편하게 농산물을 구매해야만 했다. 하지만 남촌도매시장은 각 구획별로 중도매인의 점포를 나누고 간판을 설치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과일동과 채소동은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단골들이 간판을 보고 점포를 찾기 편하다고 합니다. 특히 채소동에는 점포마다 저온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더욱 신선한 채소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는 전국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임종학(63) 덕풍청과(주) 채소조합장은 구월도매시장 때는 시장 환경상 소매가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 거점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후 소비처로 바로 납품되는 농산물 양이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남촌도매시장에는 지하에 저온 경매장과 전처리 시설 등도 설치돼 납품업체의 요구에 맞춘 농산물 공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구월 대비 주차장 4배 넓고, 원스톱 쇼핑 가능

남촌도매시장은 기존 구월도매시장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했다. 축구장 약 6개 정도인 16만9,851㎡ 규모의 부지와 건축물 면적은 구월도매시장보다 3배 가까이 넓어졌고, 지상과 지하에 구월도매시장(713대) 대비 4배 정도인 2,8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과일동, 채소1동, 채소2동, 식자재동을 건립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수산물을 포함한 식자재 구입도 가능해졌다.

"남촌도매시장은 최첨단 시설에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장식을 못했는데도 관심을 갖고 시장을 찾는 납품업자들과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도매시장을 넘어 농식품 복합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의 옥상 일부는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업무동에는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동기(58)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은 남촌도매시장이 인천 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환경과 소비자 편의 고려한 '농식품 복합 타운'

남촌도매시장은 소비자 편의와 환경을 먼저 생각했다. 넓은 주차장 외에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1개 노선(27번)을 도매시장 내부로 경유하도록 했고, 2개 노선(5번, 537번)은 시장 입구에 정차하도록 했다. 오는 5월까지 시장 내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4월부터는 인천e음 카드를 비롯해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업무동에는 홍보관 및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테나숍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곳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생산제품 및 향토 우수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한편 쿠킹클래스 등 이벤트를 열고, 홍보관을 활용한 견학 코스를 만들어 어린이와 시민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촌도매시장은 모든 야채와 청과의 식물성 잔재물을 비료화하는 시설을 갖춘 환경친화적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식물성 잔재물)은 환경동에 마련된 전처리 과정을 거쳐 비료화되는데, 이는 농가에 퇴비 원료로 공급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모든 처리 시설은 지하에 설치돼 있어 시민들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봄동, 달래, 냉이 등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봄이 그득하다.(왼쪽)
시장 내부를 경유하는 27번 시내버스.(오른쪽)

누구나의 삶에서 나만의 삶으로

김연식

인천대학교, 인천일보, 3등 항해사, 그린피스Greenpeace, 시워치Sea-watch….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실체보다 더 중요한 간판들도 그에게는 우연히 찾아온 인연일 뿐이다. 그저 신문기자가 되고 싶었고, 더 넓은 세상을 누비고 싶었고, 자신의 삶이 더 큰 '의미'를 갖길 바랐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경험'을 쌓고 싶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 바다가, 인천이 있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그린피스, 시워치**

그린피스 에스페란자호 선원들.(왼쪽)
김연식 선장이 난민 구조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오른쪽)

20대 김연식은 종종 자유공원에 올라, 인천국제공항을 박찬 비행기가 아득히 멀어지는 광경을, 인천항에서 닻을 올린 배가 먼바다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비행기와 배의 항로 끝에 닿아 있을 더 넓은 세상이 궁금했다.

인천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그는 예정된 수순처럼 인천일보 기자가 됐다. 회사 바로 앞에는 인천내항이 있었다. 어느 날 회의실 창밖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내다보니, 조정실에 선장과 항해사가 마주 보였다. 운명처럼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길로 항해사가 되는 법을 알아보고 결국 외항선에 올랐다. 3등 항해사가 되어 5년간 36개국을 항해했다. 그린피스 환경감시선을 운항하며 북극과 남극, 아마존, 지중해, 파타고니아 등 전 세계를 돌며 먹고 자고 숨 쉬었다.

4년 공부와 3년 경력을 뒤로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처음부터 걷기 시작하다니, 뭔가 남다른 계기나 대단한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는 유난히 바다를 동경한 적도, 남을 돕겠다는 사명감을 품은 적도 없다. 스스로 살고 싶은 인생을 만들어가다 보니, 세상에 도움 되는 일을 하게 됐을 뿐이다. 환경운동 단체에서 일하며 대가 없이 난민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그다.

어쩌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라고 그는 말하지만, 그런 담담함이 오히려 귀하고 고맙다. 병들어가는 지구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구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고 내세우는 대신, 인생을 재미있고 충만하게 살고 있을 뿐이라니.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보다 편안하게 해주는 말은 없을 테니까.

구조를 기다리는 난민 보트의 난민들.

'더 넓은 세상'을 누비고 싶었고,
자신의 삶이 더 큰 '의미'를 갖길 바랐고,
누구나 할 수 없는 다채로운 '경험'을 쌓고 싶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
바다가 있었고, 인천이 있었다.

2017년 아프리카 콩고에서 그린피스의 탐사선 에스페란자호를 방문한 학생들과 함께.

interview

항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 언제 처음 했나요? 사실 꼭 항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문기자를 꿈꿔왔지만, 막상 해보니 저와 잘 맞지 않더라고요. 아직 20대 후반이었으니,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마음먹었지요. 항공기 파일럿, 해외 지사 근무, 외교관, 항해사…. 그중 항해사는 낮은 순위였고요. 무슨 일을 하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여기저기 두드려봤고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합격하면서 선원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항해사라고 하면 왠지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하고 선박에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나 봐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고등학교 때 제 가슴을 뜨겁게 한 것은 항구를 떠나는 배가 아니라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다 인천에서 일하면서 항구를 알게 됐지요. 인천일보가 항구 바로 앞에 있거든요. 어느 날 5층 회의실 창밖으로 대형 선박과 그 안의 선장과 항해사들을 보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뿐 아니라 배를 타고도 어디론가 떠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인천에 살지 않았다면 항해사 김연식도 없었겠지요.

항해사가 되는 과정이 힘들진 않았나요? 전에 하던 일과 너무 다른 분야여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6개월 동안 선원 교육을 받고 1년 동안 실습 항해를 하면 3등 항해사가 될 수 있어요. '주방에서 감자 깎고 접시 닦아도 항해만 할 수 있으면 좋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냥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은 긴 시간이니까, 오랫동안 배를 타는 것이 힘들긴 했어요. 좋을 때가 더 많았지만요.

이번엔 확실히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은 거네요. 항해사로 일하면서 책도 냈지요? 항해사 자격증을 따고 2015년까지, 5년 정도 대형 선박에서 일하면서 36개 나라를 다녔습니다. 처음 배를 탈 때부터 항해기를 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배에서는 혼자 글을 쓰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답답했지요. 2012년 신동아 논픽션 부문에 공모한 것도, 글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때 다음 글이 기대된다는 심사위원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그 덕에 2015년 제 경험을 담은 <스물아홉, 용기가 필요한 나이>를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즈음 그린피스로 옮긴 거지요? 또 새로운 도전을 한 이유가 뭔가요? 36개국이면 큰 배가 갈 수 있는 거의 모든 나라예요. 목표한 책도 냈고 가볼 만한 나라도 다 가봤으니, 다시 반복하기보다 다른 재미있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사실 대형 선박에서 일하는 항해사들은 군인이나 대기업 직장인과 비슷해요. 열심히 일해서 빨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선장으로 진급하고 도선사가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지요. 늦게 시작한 만큼 '진급의 사다리'에 오르기 힘들 테니, 오히려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린피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변화를 주고 싶던 무렵,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 목사의 테드TED 강연을 들었어요. '네 손에 뭐가 있는지 봐라. 그것을 너만을 위해 쓰면 성공한 삶을 살겠지만, 남을 위해 쓰면 의미 있는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와닿았습니다. 제 손에는 젊음, 시간, 건강, 그리고 항해사 면허가 있더라고요.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긴 했지만, 꼭 그린피스여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의미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인연이 닿은 거지요.

그린피스 밖에서도 여러 활동을 하던데,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린피스는 3개월 근무하고 3개월 휴식하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워낙 시간을 귀하게 생각해서, 3개월을 그냥 쉴 수가 없더라고요. 마침 시워치 활동을 같이 해보자는 독일 친구의 말을 듣고 반가웠습니다. 시간 맞을 때마다 지중해로 가서 3주씩 난민 구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선배들과 해양문화교육협동조합을 만들어 제주도에 교육장을 꾸미고 있어요. 거기서 환경 교육도 하고, 해양 쓰레기로 작품도 만들고 하려고요.

책도 썼고, 교육장도 운영한다니, 젊은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이끌어주고 그런 편은 아니에요. 제 인생 꾸리기도 벅차다고 할까. 그래도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찾으면 길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공짜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저도 언론사를 나와서 선원 교육을 무료로 받았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며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청년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또 전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하는 일, 지금 가진 경력에 연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 저를 확 끌어당기는 일을 만나는 '사고'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해사 김연식의 이야기는 인천시 발행 단행본 <인천, 사람>에도 담겨 있습니다.
책을 받고 싶은 분은 인천시 소통기획담당관실 홍보콘텐츠팀(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캠프마켓

1 우리 땅에서 우리는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2 미 헌병대 군견軍犬 막사 입구.
3 한글·영문의 각종 표식.

4 '빵 공장' 등 부대 내 우편물 분리대.
5 PX로 사용되었던 1950년대 지어진 퀀셋 건물. 이번에 철거되었다.

금단禁斷의 땅에서 수집한 박제된 '아픔'

글·사진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

그들이 나갔다. 떠나면서 '흔적'을 남기고 갔다. 숨기고 싶은 것, 사용할 수 있는 것, 돈 될 만한 것 등은 모조리 가져갔다. 건물은 가져갈 수 없었다. 무기를 만들었던 병기창과 군수품을 쌓아놓았던 창고 그리고 자신들이 머물렀던 막사 등을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갔다. 그 안에는 그들의 행적이 파편화돼 흐릿하게 남아 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아픔도 박제화돼 또렷하게 박혀 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1939년 부평에 육군조병창을 세우고 매달 소총 4,000정, 탄환 70만 발 등의 무기를 생산했다. 그 땅은 1945년 일제 패망 후 그해 9월 인천항으로 상륙한 미군에 의해 접수되었다. 부평벌에 왜색풍이 한바탕 스쳐 지나가고 양키 문화 바람이 불어닥쳤다. '애스컴시티'라는 철조망을 둘러치고 이곳을 80년간 금단禁斷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캠프마켓

부평의 미군 부대는 점차 축소된 채 '캠프마켓'이란 이름으로 오랫동안 존속되었다. 이제 그 땅은 우리에게 반환된다. 1단계 A, B구역으로 나눠 돌아온 그 땅은 병든 채 우리 품에 안겼다. 부대 내 많은 토양이 다이옥신류로 심하게 오염된 상태다. 이 땅은 활용에 앞서 먼저 치료부터 받아야 한다. 정화 작업을 위해 A구역(부대 북측) 23개 건물 중 16개 동은 허물고 미군 탄약고 벙커, 군견 막사, 초소 등 7개 동만 남긴다. 오염된 토양은 태우기도 하고 씻어내 정화 작업을 할 모양인데 진정한 정화는 우리 가슴에 깊이 박혀 있는 '옹이'를 빼내는 것이다.

6

6 반환 1단계 A구역 철거 현장.
7 벙커로 지어진 탄약고 입구. 지붕은 흙과 풀로 위장돼 있다.
8 텅 빈 군수품 창고 내부. 이제 새 빛이 들고 있다.

7

8

9

10

11

9 이곳에서는 맨홀 뚜껑조차 미제Made in USA다.
10 주차장 바닥 표시. 누가 '객'이고 누가 '주인'이었던가.
11 주유기와 유류 드럼통. 반환된 땅은 기름 범벅이다.
12 50피트 내에 화기 엄금!! 화학류 탱크는 부대 내 곳곳에 설치돼 있다.

12

철거 전 인천시립박물관은 인천시 부대이전개발과와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를 얻어 모든 건물을 몇 차례에 걸쳐 샅샅이 훑었다. 질곡으로 뒤범벅된 그 땅에서 주둔군의 행적과 우리의 아픔이 오버랩된 '흔적'을 수집하고 기록했다. 세월은 흘렀지만 우리의 시간이 얹혀 있지 않아 낯설었던 그 땅. 한국 근현대사의 응축된 수난사를 품고 있는 그 땅. 그 지층 속에 묻힌 역사의 기억과 흔적 그리고 망각을 끄집어내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어쨌든, 이제 공간 회복과 치유에 대한 첫걸음은 시작되었다.

부평
미군부대 앞
‘신촌’에
살고지고

글 **신현수**

—

시인으로, 평생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를 하다 지난 2월 명예퇴직해 현재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실천하는 지식인’으로 오래도록 인천 시민단체를 이끌어왔다.

시인의 시집 <천국의 하루>

부평서초등학교 1학년 때
남동구 간석동 약산에서.(사진 맨 오른쪽)

요즘 뜻하지 않게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으로 출근한다. 운동할 시간이 나지 않아 차를 타기 전 부평공원을 한 바퀴 걷고 있다. 공원 끝을 따라 걸으면 5,000걸음 정도 된다.

나는 신촌 출신이다. 서울 신촌이 아니고 인천 부평 신촌이다. 신촌은 기지촌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랑스럽지는 않았다. 신촌 뒤쪽으로 썰매 타고 고기 잡던 개울이 흘렀다. 개울 너머 군인들이 주둔하던 부대가 있었다. 나중에 ‘숟갈 공장’으로 바뀌었다. 그게 지금 부평공원이 되었다. 그곳이 일제강점기, 무기를 만들던 조병창 자리라는 것은 나중에 커서야 알았다. 극단 아토의 이화정 대표가 조병창을 소재로 뮤지컬 ‘언노운UNKNOWN’을 만들기도 했다. 신촌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삼릉)로 일하러 온 노동자들 때문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미국이 주둔하면서 소위 기지촌이 됐다. 어쨌든 그래서 ‘신촌’이다. 신촌에서 굴포천을 건너면 산이 하나 있다. 우리는 그 산을 ‘앞산’이라고 불렀다. 식물 채집도 하고, 동생을 잃어버리기도 했던 산이 앞산이다.

얼마 전 약속이 있어 어린 시절 살던 신촌을 걸었다. 그때 다니던 신촌성결교회도 그대로다. 여기는 수근약국 자리였고 여기는 장 의원 자리, 여기는 연안상회 자리, 여기는 화교가 운영하던 중국집 자리. ‘백운 쌍굴’을 걸어서 지나갔다. ‘백운’이란 명칭은 1980년대 중반 백운역이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것이고, ‘쌍굴’이란 이름도 당연히 없었다. 그곳은 사실은 굴이 아니라 굴포천 위를 지나가는 철길

신현수 선생이 한 살 때부터 살던 부평 신촌의 생가.

부평 신촌성결교회
1969년 성탄절 주보.

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두 복개했지만 여기서 여름에는 헤엄치고 놀았고, 겨울에는 썰매 타고 놀았다. 복날이 다가오면 동네 어른들이 개의 목에 끈을 묶어 철길에 매달았다. 무슨 ‘고려시대’ 얘기하는 거 같지만 불과 몇 십 년 전 일이다. 50여 년 전 일인데 기억이 선명하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왜 이토록 힘이 셀까?

우연히 인터넷에서 부평 신촌성결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사진(1966. 6. 5)과 부평 신촌성결교회 1969년 성탄절 주보를 발견했다. 이런 게 아직 남아 있다니 놀랍다. 이만신 목사님, 안광성 당시 전도사님, 전복순 전도사님…. 이 어른들의 이름을 보니 그분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분들의 말투와 목소리까지도. 초등학교 시절, 크리스마스이브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나오는 연극을 했던 일, 나보다 더 큰 기타를 메고 ‘장막을 거둬라 너의 좁은 눈으로’ ‘빠빠빠빠 사랑의 진실’을 노래했던 일, 고등학교 누나들이 내 노래에 환호했던 일, 공연이 끝난 후 함께 노래한 교회 형의 오버 자락 속에 들어가 새벽길을 걸어 집집마다 새벽송을 돌았던 일, 교회에서 돌아온 새벽 그토록 갖고 싶었던 세이버 스케이트가 방안에 놓여 있었던 일, 교회 지하 베다니실에 모여 찬송가를 불렀던 일, ‘갈꽃의 속삭임’ 문화제에 전시할 시화를 만들기 위해 산에서 주워온 낙엽 위에 그림 그렸던 일, 그리고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던 일….

나는 인천 사람이고 부평 사람이다. 나는 참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다. 한곳에서 무려 60년 이상 살고 있다. 지금이 농경 사회도 아닌데…. 물론 대학과 직장생활 때문에 떠나서 산 적이 있지만 어머니가 계속 살고 계셨으므로 떠난 게 아니었다. 우리 아이들의 ‘고향’은 ㅎ아파트다. 제금난 큰아이가 근처에 살고 아기도 낳아 키우고 있으니 아버님부터 따지면 무려 4대가 부평에 깃들어 살아가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부평공원을 걸었다. 아버지가 평생 부평역까지 걸어서 출근하시던 일이 떠오른다. 나도 내일부터 부평역까지 걸어서 출근해 봐야지 생각하다가, 아니 그때는 백운역이 없었으니까 부평역까지 걸어가셨겠지, 하는 생각에 미치자 괜한 헛웃음이 나온다.

“파릇파릇한 새순이 인천愛뜰에 올라오고 있네요.”

시민 시장
고광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천시와 저희 전문가를 믿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모임 자제)와 손 씻기, 마스크하기를 잘 지켜주시면 코로나19는 곧 극복될 겁니다.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누굴 만나셨나요? 기침, 발열은 언제 시작됐나요….’

방호복으로 완전무장한 채 두세 시간 진행하는 역학 조사를 마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확진 환자가 들렀던 장소와 시간, 동선과 만난 사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야 한다. 사람인지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시각각 휴대전화 기록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감염의 최적 조건은 밀접·비말 접촉. 이걸 막지 못할 때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창궐한다. 3월 중순 성남의 한 교회가 그랬고, 서울 손해보험사 콜센터가 대표적 사례다.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 방역, 검체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접촉자들을 찾아 격리하고 2주 동안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광필(45,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교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초 발생한 설 연휴 이후, 그는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 본업은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이지만 두 달 넘게 ‘인천시 공무원’으로 일해 왔다.

시청에선 매일 오전 8시 30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열린다. 이게 끝나면 곧바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오후 6시를 전후해 또 한 차례 미팅이 진행된다. 주말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인천이 인구 대비 확진 환자 발생이 가장 적은 것은 고 교수가 속한 지원단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접촉자 발표도 인천이 가장 빠르고, 미국에서도 선택한 DT센터 역시 인천에서 최초로 제안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스템과 매뉴얼이 잘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고 교수는 “인천은 시정부를 중심으로 의료진, 전문가, 기관 간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된 데다 높은 시민 의식까지 더해져 코로나19와 잘 싸워왔다”며 “시민들께서는 지금처럼 예방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타인에게 절대 전파해선 안 된다는 배려의 마음으로 행동했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009년 서울대에서 전공의 수료와 함께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2010년 가천대로 부임했다. 이후 인천시공공보건의료원단 단장과 같은 봉사직을 마다하지 않고 건강한 인천 만들기를 실천해 왔다. 건강 조사, 질병 원인과 예방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고 교수가 바라보는 지점이다. 그는 왜 의사의 길을 택했을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일만큼 보람이 큰 일이 또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인술을 펼치는 의사로서의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선언할 정도로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험한 존재라고 경고한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천시와 저희 전문가를 믿고 사회적 거리 두기(모임 자제)와 손 씻기, 마스크하기를 잘 지켜주시면 코로나19는 곧 극복될 겁니다.” 예방의학 명의가 시청사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인천愛뜰’ 광장 위로 파릇파릇한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다.

‘일상의 행복’
집에서 누려요

예상대로 장기전이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행복하지만, 솔직히 조금 지칠 때도 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 좋은 계절, 모두의 안녕을 위해 봄을 뒤로한 채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이 고맙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 시가 집에서 즐기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와 콘텐츠를 마련했다. 힘내라 인천, 코로나19 방구석 생활 백서.

코로나19
‘힘내라, 인천 시민!’

집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콘텐츠가 쏟아진다. 우리 시는 개학 연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생긴 ‘집콕 현상’에 발맞춰, 시민들이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름하여 ‘코로나19, 힘내라 인천 시민’. 응원은 이미 시작됐다. 3월 23일부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SNS 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가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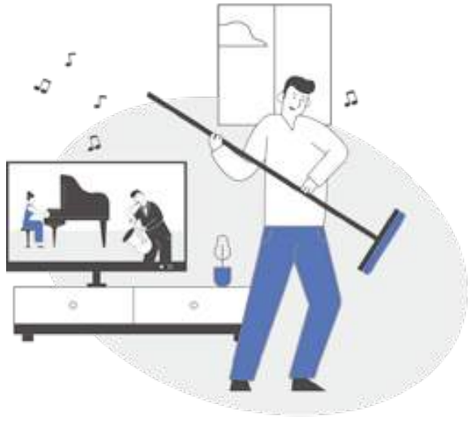
인천에서는 누구나 시간 여행자, 공간 이동자가 된다고 했던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흥미로운 볼거리가 넘친다. 박물관과 공연장 등 직접 무대를 찾지 않고도 안방에서 즐기는 온라인 서비스 정보, 손 소독제와 비누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손수 만들어보는 DIY(Do It Yourself),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와 운동 등을 소개하는 영상과 카드 뉴스도 제공된다.

우리 시 홍보대사도 가만있을 리 없다. 인천 출신 개그맨 송필근을 필두로 5명이 의기투합한 ‘필근아 소극장팀’은 코로나19 관련 알짜배기 정보는 기본, 전공을 살려 코믹 영상도 제작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인천미디어크리에이터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 우수작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착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착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천하고자 하는 착한 행동을 손글씨로 적어 개인 SNS에 올리고, 함께 참여할 지인을 지목해 확산하는 릴레이 방식의 ‘착한 행동 캠페인’이다.

www.incheon.go.kr/health/HE020415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www.facebook.com/incheon.gov
twitter.com/incheon_gov
www.instagram.com/incheon_gov

제1장
관람 생활 백서

박물관이 집으로 찾아온다. 인천시립박물관과 검단선사박물관이 온라인 박물관을 운영 중이다. 온라인 박물관은 시민들이 모바일 또는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3차원으로 펼쳐진 박물관으로 들어가 원하는 전시 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박물관에 e-Book 시스템을 접목해 관람뿐만 아니라 정보도 제공한다. 관람 중 지정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련 동영상 또는 도록 자료를 펼쳐볼 수 있는 학습 자료실 기능을 추가, 유물에 대한 상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장
공연 생활 백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던 공연을 영상으로 접할 수 있다. 유튜브로 시선을 돌리면 훨씬 많은 공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인천시립합창단과 인천시립무용단, 인천시립극단이 각각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공연 전체 영상은 물론이고, 하이라이트 영상도 올려져 있어 시간과 편의에 따라 골라 볼 수 있다. 해외 유명 예술 단체들도 수준 높은 공연을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빈 국립 오페라, 베를린 국립 오페라 등 세계적인 단체들이 무관중 생중계와 무료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제3장
독서 생활 백서

책 읽는 방식도 손쉬워졌다. 청라호수공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북 드라이브’를 이용할 수 있다. 운전자가 온라인으로 예약한 책을 차량에 탑승한 채 대출받거나 대출 도서를 반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는 셀프로 책을 대출·반납할 수 있는 자판기 형식 ‘스마트 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운영이 중단된 무료 택배 서비스가 재개됐다. 임산부,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은 대출 예약한 책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고, 우체국 택배를 통해 착불로 반납할 수도 있다. 대량의 전자책과 오디오북 콘텐츠를 보유한 통합 전자 도서관 대출 권수도 최대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했다.

IMAGE NEWS

01

#코로나19 극복 위한 #가용한 행정 수단 총동원
#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복지·문화 #보건·의료까지
#기본부터 꼼꼼히

02

#인천e음 캐시백 최대 10%로 상향
#중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착한 임대료 확산 운동 참여
#추경 등 확대 재정 편성 #재정 조기·집중 집행

03

#복지 서비스·방역 물품 #취약 계층 최우선 지원
#확진 환자·자가 격리자 등 지원 강화 #시민·보건의료진
심리 상담 확대 #성금·기부 물품 신속·공정 배분
#외출 자제 시민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04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 방역 강화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권고·예방 강화 #음압병동·생활치료센터
최대 확보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센터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24시간 검체검사 실시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총 5,086억원을 투입한다.

+ 우리 시는 최근 유럽 등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 공항검역소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검역 및 격리관찰을 강화한다.

+ 우리 시는 감염에 취약하고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많은 임신부와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30만 매를 긴급 지원한다.

+ 우리 시는 학교 개학연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 활동 시간이 길어진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19, 힘내라 인천시민!' 이란 이름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우리 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0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 우리 시는 4월 7일부터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자 526명을 모집한다.

NEWS BRIEF

긴급재난생계비 최대 50만원 지급…총 5,086억원 투입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총 5,086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3월 2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이번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경제위기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시는 긴급생활지원 패키지에 1,326억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복지와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 공공의료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에 2,252억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761억원, 임대료 인하·소상공인 부담경감에 158억원, 군·구·교육청에 589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씩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474만9,000원 이하여야 한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 후 강사,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 강사, 관광가이드·통역, 아이돌보미·간병인,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캐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20만~50만원으로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만~5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긴급재난생계비는 4월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15만3,899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돌봄쿠폰을 지급하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0만8,834가구에 한시적으로 생활을 지원한다. 청년에게 지원하는 구직활동비 대상도 대폭 확대하고 청년인턴십과 공공근로 확대,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경제대책 예산을 토대로 소상공인 7만8,000개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한다. PC방·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 개 업체에는 30만원씩 지원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신규 추진, 수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수혜 대상을 늘려 중고생 1,000명, 대학생 1,500명에게 총 30억원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시 예산담당관실 032-440-225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 최대 145만7,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 및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복지정책과 032-440-2923

임신부, 요양원 종사자 등에 마스크 30만 매 지급

우리 시는 감염에 취약하고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많은 임신부와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30만 매를 긴급 지원한다. 이번에 임신부, 요양원 등 취약계층에 배부할 마스크는 광저우시가 인천시에 제공한 KN95·N95 마스크로 국내 안전성 및 기능성 검사를 마친 제품이다.

시는 앞서 3월 초에 최일선에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취약계층인 요양병원 종사자, 콜센터, 산후조리원 등에 마스크 28만 매를 배부한 바 있다.

시 예산담당관 032-440-2243

버스 운수종사자에 마스크 1만7,400매 긴급 지원

우리 시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마스크 1만7,400매를 긴급 지원했다.

시는 시민들과 대면접촉이 잦은 버스 운수종사자의 감염이 우려되어 그간 지속적으로 버스업체를 점검해 왔으며, 특히 위생물품 지급과 청결·방역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스크는 광저우시가 인천시에 제공한 KN95·N95 마스크로 안전성과 기능성 검사를 마친 제품이며 버스 운수종사자 5,800여 명에게 각 3매씩 배부했다.

시 버스정책과 032-440-3943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마스크 생산량 증대를 위해 마스크 생산 설비 도입 자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50억원 규모의 특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520억원을 추가해 1,67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부족한 마스크 생산량 증대를 위해 마스크 생산 설비 증설 또는 기존 산업용 필터 제조업체의 멀티브로운(MB) 필터 제조 라인 신설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고 최대 2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실시한다.

시 산업진흥과 032-440-4253

'착한 임대료' 상생 선언 잇따라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함께 이겨내려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인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신도시 상가 건물주들이 임차상인들과 함께 가기 위해 상생을 선언했다. 인천국제공항신도시 상가번영회장은 "건물주들이 흔쾌히 인하를 결정해 준 덕분에 26개 점포가 2~4개월 동안 20~30%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아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3월 24일 기준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는 토지금고시장을 비롯한 17개 시장의 284개 점포와 운서동, 간석동 상가 등 25개 지역의 488개 점포까지 총 42개 지역에서 772개 점포가 동참하는 등 온정의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547

‘힘내라! 인천 시민!’ 코로나19 극복 콘텐츠 서비스

우리 시는 학교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 활동 시간이 길어진 시민들을 위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코로나19, 힘내라 인천 시민!’이란 이름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는 검단선사박물관 온라인 3D 박물관, 공연 하이라이트 VOD 서비스 등 현장을 찾지 않고도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정보, 손 소독제·비누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손쉽게 직접 만드는 DIY 영상,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와 홈트레이닝 등을 소개하는 영상과 카드 뉴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인천시 홍보대사 ‘필근아소극장팀’이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웃음을 담아 만든 코믹 영상도 제공한다. 콘텐츠는 시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SNS 채널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
※콘텐츠 페이지 www.incheon.go.kr/health/HE020415
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3033

무증상(음성 판정) 해외 입국자 철벽 관리

우리 시는 최근 유럽 등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 공항검역소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검역 및 격리 관찰을 강화한다.
정부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절차에 따라 공항에서 음성 판정을 받거나 무증상 입국자(내국인, 장기 체류 외국인)도 전원 14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이에 시는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기존 인천시가 마련한 임시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과 청소년수련관 두 곳에 입소시켜 안전하게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소자에게는 안전한 격리 생활을 위해 도시락, 세면도구 등 생필품, 도서 등의 생활편의가 제공되고 외출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 담당공무원, 간호사 등이 24시간 근무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수시로 체크해 유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 조치한다.
시 대변인실 032-440-3075

가정·석남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화

우리 시는 경인고속도로(현 인천대로) 주변 지역에 진행 중인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옛 경인고속도로 주변, 서구 가정동과 석남동 일대 21만3,392㎡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된다. 인천시와 서구, LH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시청에서 ‘석남어울림센터와 거북이기지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석남어울림센터에는 194억원을 투입해 복합문화시설과 행복주택을 조성하며, 거북이기지에는 144억원을 투입해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지원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고속도로재생과 032-440-4156

‘캠프마켓’에 음악창작소 조성

우리 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0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지역인 ‘캠프마켓’에 지역 음악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음악창작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캠프마켓이 있는 부평은 1950~1960년대 주한미군 군수지원사령부(애스컴)를 중심으로 20~30개의 클럽이 운영될 정도로 국내 밴드 음악의 중심지였다.
시는 내년까지 국비 10억원과 시비 22억원 등 32억원을 들여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에 음악창작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음악창작소는 녹음실·편집실, 콘서트·쇼케이스 개최를 위한 공연장, 음악 세미나실, 연습실, 창작 협업을 위한 커뮤니티룸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시 문화예술과 032-440-4018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 가속화

송도국제도시 호수와 수로를 ‘ㅁ’자 형태로 연결하는 워터프런트의 두 번째 구간 공사가 2022년 시작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23일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단계 2공구(9.4㎞) 조성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이에 따라 1단계 2공구 실시설계를 내년 말까지 마치고 2022년 착공,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542

360만원 저축하면 1,440만원 목돈 지급 청년저축계좌

우리 시는 4월 7일부터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자 526명을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더해 매달 40만원씩 적립된다. 3년 후 만기 때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에 정부 장려금을 더해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이다. 연 1회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시 자활증진과 032-440-1543

알고 보면 쉽다! 궁금한 사항
Q&A

코로나19 관련한 팩트 체크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가짜 뉴스도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정확한 팩트를 체크해봤다.

Q.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있나요?
A. YES :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 2. 26. 국회 의결) 공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Q.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A. YES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으로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A. NO :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기간 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간 다중시설, 방문해도 괜찮나요?
A. YES : 환자 노출 장소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즉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하게 됩니다.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공간은 기본적으로 소독하고 환기를 시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하루 사용 금지

Q.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A. YES : 사스, 메르스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코로나바이러스는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인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인천의 이야기, 인천 시민 여러분의 색으로 채워주세요.

인천이 그리다 인천을 그리다

작가의 말

맑고 향기로운 여정

20년 전쯤이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염전 앞 다 쓰러져가는, 그래서 더 운치 있는 소금 창고가 눈에 들어왔다. 길 양옆으로 핀 분홍빛 해당화가 향기를 더하고, 붉고 고운 함초는 생기를 더했다. 낡은 창고와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은 너무나도 좋은 작품 소재가 되어주었다. 작품의 명제는 늘 맑고 향기로운 여정이다. 가슴에 사랑이 있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잔잔한 기쁨이 솟아나듯,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맑고 향기로운 그 무언가가 스며들길 꿈꿔본다.

맑고 향기로운 여정 53×41cm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월 드로잉 인천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이원희 서구 거북로

송찬섭 미추홀구 인하로

박영단 부평구 부흥로

김인수 중구 제물량로

박혜진 서구 봉오재2로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2) **이메일** : goodmorningic@naver.com
3) **기간** : 2020년 4월 17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이달의 드로잉
정문희 작가

아홉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비구상 부문에 입선했으며 인천미술협회와 구상전 초대 작가 및 이사, 인천미술전람회 초대 작가, 상임이사,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작가의 모든 작품에는 '맑고 향기로운 여정'이라는 단 하나의 명제가 붙는다.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사랑한다면, 면 마스크 사세요

우리 시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제작한 면 마스크 구입 안내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환경, 나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면 마스크 구매하세요.

취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 문제 해결에 동참
판매 : 인천시 사회적 경제 기업 6곳
종류 : 필터를 끼울 수 있는 오가닉 면 마스크, 한지사 사용 면 마스크 등
구입처 : 인천e몰(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인천e음' 검색 후 앱 설치)
구입 방법 : 인천e몰 홈 하단 배너 클릭, 인천e몰 인천 굿즈 상단 배너 클릭, 인천e몰 마스크 검색(인천e몰 구매 시 4% 캐시백 적립 가능)
문의 : 시 사회적경제과 Ⓣ 032-440-4914

02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를 위해 체납 처분 유예, 징수 유예 등 지방세외수입을 지원합니다.

대상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내용 : 지방세외수입법상 체납 처분의 유예(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 개별 법령 등에 따른 징수 유예 등(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 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 유예, 납부 연기, 분할 납부 등 실시)
문의 : 시 지방세정책담당관 Ⓣ 032-440-2572

03 제2의 민식이는 없어야 합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 의무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13세 미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 시 교통정책과 Ⓣ 032-440-3862

04 혼자 고민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노인 돌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 노무 상담을 지원합니다.

상담 주기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6시(연중 상시)
상담 인력 : 공인노무사
상담 대상 : 노인 돌봄 시설 종사자 누구나
상담 내용 : 근로 계약, 임금, 각종 수당, 퇴직금, 연차 및 휴가 사용,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 방법 : 사전 예약 또는 운영 시간 내 방문 상담, 전화 상담(Ⓣ 032-715-7684)
문의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돌봄종사자지원팀 Ⓣ 032-715-7682

05 인천시 지역 서점 전수조사

지역 서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서점에 대한 신뢰 구축과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기간 : 4월 1일~6월 30일
대상 :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관내 서점(2019년 전수조사 등록 서점 제외)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서적으로 등록된 업체, 외부에 서점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매장 하나에 하나의 사업자만 인정(사업자등록증상 상호명과 일치), 우리 시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해당 서점(인천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으로 경영 중인 서점)
절차 : 등록 신청▷현장 실사▷등록 서점 홍보 자료 제작▷배포
신청 : Ⓕ 032-472-8180 Ⓔ bookstore@imla.kr
문의 :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사무처 Ⓣ 032-472-8177

06 미림극장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화도진문화원에서 미림극장을 무대로 진행하는 '동구 주민과 함께하는 가족 음악회'에 참가할 공연 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연 일시 : 6월~11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7시(8월 제외)
공연 장소 : 미림극장
접수 기간 : 4월 17일까지
결과 발표 : 4월 24일 오후 5시 예정(개별 통지)
선정 단체 : 총 5개 팀
공연료 : 60분 이상 공연 기준 최대 160만원(제세공과금 포함)
문의 : 화도진문화원 사무국 Ⓣ 032-777-8957

07 지문 등록하고 가족 안전 챙기세요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실종 시 가족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문 등 사전 등록' 안내입니다.

등록 대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록방법 : Ⓗ www.safe182.go.kr, 모바일 '안전드림' 앱,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문의 : 국번 없이 Ⓣ 182

08 톡Talk하면 통通해요

우리 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정책 담론장 '토론 Talk Talk'을 운영합니다. 토론 의제 1호로 선정된 '횡단보도,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론 기간 : 4월 17일까지
토론 방식 : 온라인 찬반 투표 및 댓글 토론
참여 자격 : 시민 누구나
참여 방법 : Ⓗ www.incheon.go.kr(소통·제안▷토론 Talk Talk), www.incheon.go.kr/cool(토론 Talk Talk)
문의 : 시 시민정책담당관실 Ⓣ 032-440-2418

09 민생, 함께 제안하고 함께 개선해요

우리 시와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이 경제 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 규제 혁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기간 : 4월 10일까지
공모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 규제 혁신
공모 과제 : 국민 복지, 일상생활, 취업 및 일자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5개 분야
공모 방법 : Ⓗ www.incheon.go.kr에서 제출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 petite979@korea.kr 또는 우편 제출
문의 : 시 혁신담당관실 Ⓣ 032-440-1648

10 아트센터 인천 페스티벌에 참여하세요

아트센터 인천에서 '2020 야외광장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단체와 개인에 대한 작품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연 기간 : 6월~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주제 : 힐링하기 좋은, 즐기기 좋은, 함께하기 좋은 공연 나들이
접수 기간 : 4월 8일~14일
공모 분야 : 클래식, 퍼포먼스, 전통예술, 다원예술, 뮤지컬, 무용 등
신청 접수 : 우편(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아트센터 인천 '2020 야외공연 페스티벌' 담당자 앞) 또는 Ⓔ goodlighting@korea.kr
문의 : 아트센터 인천 Ⓣ 032-453-7700

11 연수문화원 프로그램 안내

[2020년 인천시민대학]

교육 기간 : 5월~9월(강좌별 상이)

교육 대상 : 인천 시민

프로그램

* 공감, 동행, 체험하며 키워가는 공동체 민주 시민 교육
* 섬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는 섬 스토리텔러 및 유튜버 양성
* 먼우금마을 이야기 교육 및 지역 사회 아카이빙

모집 기간 : 4월 1일부터(선착순)

참가비 : 무료(단, 탐방비 및 여행자 보험비 개인 부담)

접수 방법 : 연수문화원 방문 접수(청학문화센터 2층)

문의 : 연수문화원 교육사업팀 Ⓣ 032-821-6229

[성년의 날 기념 전통 성년식]

일시 : 5월 16일 오후 5시

대상 : 2001년생 연수구 거주 성년과 외국인 유학생, 구민 남녀 각 4명

장소 : 원인재

참가비 : 무료

모집 기간 : 4월 24일까지

접수 방법 : 전화 및 연수문화원 방문 접수(청학문화센터 2층)

문의 : 연수문화원 전통문화팀 Ⓣ 032-821-6229

[나눔과 배려를 배우는 '전통문화 예절 학교']

교육 대상 : 연수구 관내 초등학생

교육 날짜 : 5월~10월 중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교육 장소 : 원인재

참가비 : 무료

접수 기간 : 5월 12일부터(선착순)

접수 방법 : 연수문화원 방문 접수(청학문화센터 2층)

문의 : 연수문화원 전통문화팀 Ⓣ 032-821-6229

[향토 문화 유적 탐방 '연수시티투어']

일시 : 4월 25일 오전 9시, 오후 1시

장소 : 연수구 일대 문화 유적지 및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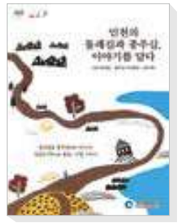
참가비 : 무료

접수 방법 : 전화 및 연수문화원 방문 접수(청학문화센터 2층)

문의 : 연수문화원 Ⓣ 032-821-6229

BOOK INFO

인천의 둘레길과 종주길, 이야기를 담다



펴낸 곳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
비매품

'인천 둘레길·종주길 역사 문화 스토리북'

인천시가 펴낸 <인천의 둘레길과 종주길, 이야기를 담다> 책자는 인천 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스토리북이다. 책은 인천의 종주길, 둘레길 코스를 소개하고, 그 속에 숨 쉬고 있는 자연과 사람, 역사와 문화 유적을 함께 알리고 있다.
인천의 둘레길과 종주길은 산과 들, 하천과 갯벌, 바다를 거치고 또 도시로 나아간다. 구불구불한 달동네 골목길을 지나고, 깨끗하게 닦인 신도시의 대로도 지난다. 부담 없이 그냥 걸어도 좋지만, 길에 얽힌 역사와 문화를 알고 걷는다면 길을 걷는 재미도 커지고 길을 걷는 자체가 소중한 체험이 될 것이다.

열전, 18인의 인천 민주화운동가

글 양진채
펴낸 곳 인천민주화운동센터
336쪽, 13,000원

'인천 민주화운동가 18인의 삶을 돌아보다'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펴낸 <열전, 18인의 인천 민주화운동가>는 인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18인의 삶을 다룬 책이다.
종교인,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권 등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큰 획을 그은 인천사 람 18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계승사업회는 인천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헌신한 사람 가운데 작고했거나 연장자를 우선으로 인물을 선정했다. 계승사업회는 앞서 사건 중심의 <인천 민주화운동사>를 펴낸 바 있다.

2020학년도 4월 시민을 위한 인천 정책 문제지

<코로나19 경제 지원 영역>

▼ 다음 지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재정·경제 대책이 마련됐다. 3월 26일, 우리 시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본예산 대비 3,558억원 증가한 11조 2,175억원 규모로, 재난 관련 기금과 군·구 분담비, 경제 대책을 포함해 총 5,086억원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에 투입된다.
추경 반영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생활 패키지 예산 1,326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재난 피해 계층을 위한 긴급 재난 생계비 1,220억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20만~50만원씩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지급 방식은 인천e음카드 또는 온누리 상품권이다. 장학 사업 및 긴급 복지 확대를 위한 취약 계층 지원 예산 106억원도 마련됐다.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긴급 지원 예산으로는 2,252억원이 편성됐다. 7만8,000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160억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피해 업종 지원에도 575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 명령 대상 시설(종교 시설, 실내 체육 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는 60억원이 지원된다. 긴급 복지 확대를 위해 취약 계층에 1,396억원, 공공 의료 체계 운영 및 기능 보강 사업에 221억원이 쓰인다.
경제 지원 예산은 158억원이다. 우리 시와 공사·공단의 임대료 35~50%를 6개월 동안 감경하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 개발 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2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된다.

1. 우리 시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얼마의 예산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에 사용될까요?
① 3,558억원 ② 5,086억원 ③ 1,326억원
④ 1,220억원 ⑤ 2,252억원

2.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은 무엇일까요?

재난 피해 계층을 위한 긴급 재난 생계비 1,220억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20만~50만원씩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지급 방식은 인천e음카드 또는 온누리 상품권이다. 장학 사업 및 긴급 복지 확대를 위한 ○○ ○○ 지원 예산 106억원도 마련됐다.

3.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 '인천 능력 평가'에 출제된 문제의 답을 순서대로 적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리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 goodmorningic@naver.com(4월 17일까지)
*** 보내시는 분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REVIEW

3월 출제된 '인천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인천시가 되겠습니다.

그날의 뜨거움이 인천 땅 위에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인천 시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픔을 이기고 성장했듯, 코로나19 또한 반드시 극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정미(부평구 수변로)

인천 만세 운동은 학생과 상인, 주민 할 것 없이 당시 모든 인천 사람들의 간절한 독립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과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애(계양구 계양산로)

백범 김구 선생이 사랑한 인천에서도 독립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최원석(계양구 장제로)

3월 인천 능력 평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인천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 시절,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신해원(미추홀구 경원대로)

인천에서 독립운동이 그토록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굿모닝 인천>을 통해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가 많이 홍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윤(경기도 광명시)

4·19 60주년, 민주화·노동 운동의 메카 인천

민주화운동 단골 집회 장소였던 부평역 광장.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머리에도 눈썹에도 두툼하게 톱밥 가루가 쌓였다. 마스크를 두 장씩 썼음에도 코를 풀면 시커먼 이물질이 끝도 없이 나왔다. 반원 모양으로 돌아가는 쇠 톱날에 손가락을 잘릴 뻔한 일도 있었다. 인천시 서구 가좌동 A목재 공장의 작업 환경은 한마디로 지옥이었다. 노란 월급 봉투엔 만원짜리 몇 장과 천원짜리, 그리고 동전이 뒤섞여 있었다. 일이 끝나면 반장이 삼겹살에 소주를 사주는 게 그나마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다. 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반장은 월급의 대부분을 밥 사는 데 쓰는 것 같았다.

친구의 제안으로 공장에 다닌 시기는 '5·3항쟁'이 터진 직후인 1986년 여름이었다. 당시 '운동권'이던 친구는 <어느 돌멩이의 외침>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과 같은 책을 슬쩍슬쩍 전해주더니, "방학인데 놀면 뭐 하냐, 용돈이나 벌자"며 공장으로 데려갔다. 명분은 용돈 벌이였으나, 그의 목적은 순진한 친구의 '의식화'였다. 소심한 탓에 운동권에 합류하진 못했지만 대학 시절 내내 '무임승차 열병'을 앓아야 했다.

1970~1980년대 많은 운동가와 학생들이 인천에 산재한 공장에 들어간다.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기 위한 위장 취업이었다.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자본가, 군사독재 정부에 맞서 싸워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의식화 교육을 진행한다. 멀쩡한 학생들이 '빵쟁이'(수감자)가 됐고, 간첩으로 둔갑해 신문에 나왔지만 투쟁은 계속됐다. 고 김근태 의원, 하종강 교수 등 노동운동가들의 거점이던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와 같은 지하운동 조직들이 큰 축을 담당했다. 그렇게 1970년대 동일방직 노동자 투쟁, 1987년 6·10항쟁의 불을 지핀 1986년 5·3항쟁,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등 수많은 노동자, 운동가, 학생들이 중심이 된 크고 작은 혁명이 일어난다.

이 시기 민중예술도 만개했다. 김민기는 1977년 군 제대 뒤 부평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료들의 합동결혼식 축가로 '상록수'를 만들었다. '솔아 푸르른 솔아'는 시인 박영근이 인천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지은 시를 바탕으로 안치환이 작곡한 음악이다. 영화 '파업전야'(제작 장산곶매)는 1980년대 부평공단에서 파업 중인 한 금속회사의 노사 간 대결을 그린 영화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대학 시절 학교에서 '파업전야'를 보며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슴 졸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당시는 백골단이라는 무술경찰들이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와 마구잡이로 학생들을 끌고 가던 시절이었다.

앞서 1960년 봄, 인천에선 4·19혁명이 전개됐다. 제3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1960년 3월 14일 오후 10시 30분쯤 동산·인천·송도고 학생 30여 명이 성산교회 앞에서 가장 먼저 시위를 시작했다. 4월 19일 당일엔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이승만 정권에 반기를 든 인천공고 학생들이 오전 수업 도중 거리로 뛰쳐나왔다. 인하공대 학생들 100여 명은 4월 21일 학교를 출발, 경동파출소 로터리에서 자유당 정권을 규탄했다. 인천의 4·19는 5·3항쟁, 6·10월 항쟁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민주화를 견인한다. 4·19혁명 60주년을 맞은 황해가 도도하게 출렁인다. 국가적 위기나 재난이 닥칠 때마다 혼연일체로 헌신, 마침내 극복해 낸 선인들의 모습이 물비늘로 반짝인다.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인 천 사 진 관

사랑은 희생이라 했던가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아닙니다. 철모르던 고교 학창 시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내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른 어깨만큼 듬직하고, 아이를 닮은 미소처럼 순수한 당신.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 그 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모진 세상 속에서도 늘 당당히 살아가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좋은 점만 쏙 빼닮은 아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가족 모두 아프지 않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유미 독자님 가족

이달의 사진은 **'스튜디오 아키온'**에서 찍어주셨습니다.

최성재 사진사만큼 가족사진을 자주 찍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사진으로 계양구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드림 스타트 사업부터, 이번 인천 사진관까지. 뷰파인더 속 그의 세상은 봄처럼 따스합니다.

위치 계양구 계양대로 106 201호 문의 070-4641-0402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개와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내주세요.

신청 : 이메일 goodmorningic@naver.com (성명/연락처/주소 필수)